

Today Chart Bond

2026. 3. 11

채권 우혜영

whydele@ls-sec.co.kr

3월 FOMC Preview: 이중 책무 리스크 균형의 균열?

이중 책무(Dual Mandates)		정책금리 전망에 대한 변화
물가 안정	최대 고용	
물가 상방 리스크 ↑	고용 하방 리스크 ↓	정책금리 인하 기대 축소(연내 동결) 추가 인하 시점 지연 또는 향후 추가 인하 횟수 축소 고용 책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물가 안정이 달성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물가에 방점 두고 정책 운용 점도표 조정(연내 동결 시사할 가능성)
물가 상방 리스크 ↑	고용 하방 리스크 →	당분간 정책금리 동결 기조 유지(인하 지연) 두 책무 달성이 모두 어려워지는 경우 또는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있어 추가 조정이 불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물가, 고용 지표 전개 양상 확인해가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운용 점도표 조정 없을 것
물가 상방 리스크 ↑	고용 하방 리스크 ↑	
물가 상방 리스크 →	고용 하방 리스크 →	
물가 상방 리스크 ↓	고용 하방 리스크 ↓	
물가 상방 리스크 →	고용 하방 리스크 ↑	정책금리 인하 기대 확대(연 최소 2회) 추가 인하 시점 앞당겨지거나 향후 추가 인하 횟수 증가 물가 책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최대 고용이 달성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고용에 방점 두고 정책 운용 점도표 조정(3월 인하 + 연내 인하 횟수 추가)
물가 상방 리스크 ↓	고용 하방 리스크 ↑	

중동궤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 확대 우려 높아짐

1월 고용 지표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2월 고용 지표는 예상과 달리 부진

: 이중 책무의 리스크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됨(물가는 상방, 고용은 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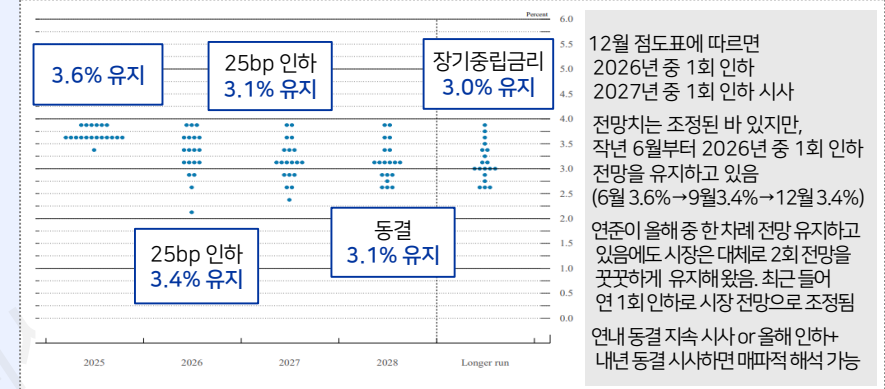
1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이중 책무 리스크와 관련해 '여전히 두 책무 간

긴장감 존재하나 물가 상방 리스크와 고용 하방 리스크 모두 다소 줄어들었다고 언급

: 3월 FOMC 회의에서 최근의 변화 반영해 이중 책무 리스크 평가에 변화 있는지 확인 필요

자료: FED, LS증권 리서치센터

점도표 변화 예상해보기



Key Point

- **정책금리는 현 수준(3.50%~3.75%)에서 동결 전망**
 - 1월 FOMC처럼 스티븐 마이런·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인하 소수의견 예상
- **점도표의 경우 올해 1차례 인하 전망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지정학 리스크 지속 기간 둘러싼 불확실성 높지만 급등한 국제 유가와 예상보다 높았던 생산자물가 고려 시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물가 상방 리스크 ↑
 - BLS 1월 고용보고서는 양호. 반면 2월은 예상보다 부진. 일시적 요인(의료 부문 파업, 악천후 등) 때문이라 3월 정상화 기대감 있지만 정체된 고용 증가 고려 시 노동 수요는 제한적인 상황인 것도 사실이므로 고용 하방 리스크 ↑
 - 이중 책무 리스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만큼 관망 스탠스 유지할 것
- **예상과 달리 물가 상방 리스크 확대, 고용 리스크 변화 없다고 판단한다면, 올해 동결 결정 지속될 가능성 높아질 수 있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시보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